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지미 이야기의 시작

(幾米故事的開始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중 과

박 정 미

2020년 2월

# 지미 이야기의 시작

(幾米故事的開始 - 한국어번역논문)

지도교수 송 현 선

박 정 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박정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趙心植



위 원

金中賢



위 원

宋琰宣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년 2월



# When the Story Was Young JIMMY LIAO

Jeong-Mi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Hyun-Su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2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Chi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차례

1. 지미(幾米)가 되기 전 / 2
2. 생명 대 발견의 의미 / 16
3. 나의 장편 이야기 / 20
4. 나와 나의 '작은 친구들' / 20
5. 신비로운 공간의 부름 / 23
6. 마법 같은 순간을 기억해 / 31
7. 변화하는 것들의 아름다움 / 41
8. 가장 외로울 때, 제일 따뜻한 친구 / 53
9. 시인에게 바치는 장미 꽃다발 / 61

## 1. 지미(幾米)가 되기 전

아버지는 그림을 못 그린다. 어머니도 그림을 못 그린다. 형, 남동생, 여동생 모두 그림을 못 그린다. 우리 집에서는 유독 나 혼자만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나는 화가의 예술적 습격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내가 화가라는 사실의 근원을 마땅히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외삼촌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셋째 외삼촌은 젊었을 때 페인트 기사였다. 퇴직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놀랍게도 프로 화가로 성장해 전시회도 열고 그림도 많이 팔았다. 당연히 나의 화가적 재능은 어머니 쪽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당신도 그림을 무척 잘 그린다는 허풍을 늘어놓으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 유년 시절에는 베갯머리에서 부모님이 들려주던 다정한 이야기도, 읽어주던 책도, 안데르센 동화도, 그림동화도 없었다. 그저 아이의 손가락을 먹어치운다는 무서운 호랑이 할멈 이야기나 혀를 날름거리는 목 잘린 괴물의 복수 같은 이야기만 있었다. 어려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의 무서운 이야기에 놀라 쫓기듯 잠들곤 했다.

나는 1958년 겨울 타이완 이란 현(宜蘭縣) 뤼동 진(羅東鎮)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마친 후 함께 타이베이(臺北)로 돌아왔지만, 어릴적 타이베이에서의 기억은 온통 흐릿하기만 하다.

유치원 입학 전 기억이 그나마 선명하게 남아있다. 당시 어머니와 큰아버지가 나를 어르고 달래서 가까스로 뤼동 집으로 돌아왔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 짧은 시간이 내 유년의 유일한 기억이 되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전통적인 ‘ㄷ’ 자 모양 집이었다. 사방으로 높이 솟은 대나무 숲에 둘러싸였고 그 너머로는 넓디넓은 논이 펼쳐졌다. 매일 새벽 큰아버지께서 논에 나가시면 그 큰 집에는 할머니와 나, 노인네 한 사람과 어린이 하나만 남았다.

그 오래된 집에는 어린 나에겐 무서운 것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부엌 뒤쪽에서 돼지 몇 마리를 키우셨는데 그 돼지들은 정말 거대하고 무시무시했다. 마당에는 오리도 많았다. 하지만 워낙 사납고 사람을 쫓아대서 나는 항상 멀리멀리 피해 다녔다. 길고 긴 낮 동안 내게는 함께 뛰어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한량처럼 혼자 문 앞에 놓인 키 작은 의자에 앉아 타이베이의 가족들을 생각했다.

농촌 사람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서 밤이면 값이 저렴한 등을 켜다. 방마다 하나같이 어둑어둑한 것이 그렇게 무서웠다. 지금도 땅거미가 내려앉는 해 질 녘만 되면 마음이 축 처지곤 하는데 어찌면 어릴 적 저 기억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적막한 시골집은 명절이나 추수 때가 돼야 비로소 활기를 띠었다. 청명절 성묘 때 한 번은 네 살배기 여동생이 어머니를 따라 시골에 왔다. 분명 동네 아이들과 밭 기슭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에 갈 때가 돼서 보니 여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 아이들 무리에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놀라서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저수지에서 동생 신발을 발견했다. 부모님은 오열하며 저수지로 뛰어들어 동생을 찾고 또 찾았다. 이틀이 지나서야 옆 마을 사람이 여동생을 데려다 주었다.

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를 본 적 있다. 사이좋은 어린 자매가 주인공이었다. 행방불명된 동생을 찾지 못하다가 연못가에서 여자아이 신발을 발견하고, 역시나 우리처럼 동생이 연못에 빠진 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은 정말 내 유년 시절 경험의 재현이나 다름없었다.

유년 시절 나는 이야기책은 고사하고 그림책조차 보지 않았다. 말하자면 후회되고 부끄럽지만 ‘그림책’이 뭐 하는 물건인지 전혀 몰랐다. 서른 살에 해외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 어린이를 위한 책이 그렇게 많은 걸 알았다. 이런, 세상에! 후에 타이베이 청핀(誠品) 어린이 서점이 문을 열자 처음으로 6천 위안을 들여 예쁜 동화책 한 무더기를 사 왔다. 정말이지 어린이 동화로 채우지 못한 유년의 공백을 꾸역꾸역 메우려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교과서 여백에 개발새발 낙서하곤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렸던 수채화를 우리 집 벽에 걸어놓았던 기억이 난다. 그림 속 들판에는 빨간색 지붕 집이 서 있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등실등실 떠다녔다. 그런데 어려서 그림 못 그리는 아이가 어디 있고, 화가 아닌 아이가 어디 있을까? 그 시절에는 누구도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양성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취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어렸을 땐 위안산(圓山) 동물원에서 열리는 사생 대회에 자주 참가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매년 기린을 그리라고 하셔서 몇 년을 연달아 그렸고, 매년 똑같이 그렸던 거 같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성적이 겨우 가작이었고 대부분 입상도 못 했다. 선생님은 “네 그림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그런 거야. 심사위원들은 분명 선생님이 대신 그려준 거로 생각하고 상을 안 준 거야”라며 위로해주셨다. 난 이 말을 끝이끝대로 믿고는 낙방의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다. 정말로 내 그림 실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때는 만화책도 잘 보지 않았다. 까만색 선으로만 그려진 만화책은 정말 재미없었다. 내가 만화책 보기에 썬병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림을 먼저 봐야 할지 글을 먼저 읽어야 할지 심지어 어느 방향과 순서에 따라 읽어야 할지까지 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최근 만화 보기의 고수인 열 살짜리 딸에게 만화책 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꼭 그림이랑 글자가 하나인 것 처럼 같이 두고 자연스럽게 읽어야지, 의

식하고 보면 글만 읽게 되거나 그림만 보게 돼요. 그러면 산만해지고 내용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만화 좀 본다는 사람이라고 할 순 없어요.”라며 사뭇 전문가답게 말해줬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진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다즈(大直) 중학교였다. 학교 규율이 매우 엄격했다. 반 친구들은 성적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자주 맞았고, 밤에도 선생님 택에서 강제로 보충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성적이 비약적으로 치고 올라간 것도 아니었다.

당시 미술 수업은 항상 다른 시험이나 필수과목으로 대체되기 일수였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선생님께 칭찬받는 학생은 없었다. 그 생애 없던 청소년기는 하루하루가 시험이었던 기억만 남아있지 그 외에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리기에 대해 말하자면 1학년 때 교내 그림 경시대회에서 전교 1등, 다음 해에 전교 2등, 그다음 해에 전교 3등을 했던 기억 정도 남는다. 그것도 아마 전교생 중에서 나만 기억하는 일일 테다.

중정(中正)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는 절친이 여럿 생겼고 함께 카드놀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영화도 보며 꽤 즐겁게 지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었다.

고등학생 때, 미술 수업은 한 번도 열심히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다.

고3 두 번째 학기 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반을 바꿔서 우리 반에 온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의학과에 진학하길 바라지만 자기는 미술학과에 지원할 거라며, 나중에 예술가가 될 거라고 말했다. 와! 나는 그제야 대학교에 미술학과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미술학과에 진학하려면 소묘, 동양화, 서예 그리고 수채화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집에 가서 아버지께 미술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마침 친구 아들이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며 도움받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자고 했다. 아버지 친구분의 그 아들이 바로 후에 저명한 화가가 된 우취안산(吳銜三) 선생님이셨다.

우 선생님은 당시 자신은 학생을 안 가르치지만, 선생님의 스승께서 학생들에게 소묘 수업을 하신다며 나를 스승님 댁으로 데려갔다. 그때는 몰랐는데 연세가 지긋하던 그 선생님이 바로 예술계의 대가 반열에 있던 리스차오(李石樵) 선생님이셨다. 천하의 천둥별거숭이가 돌연 무림 고수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공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니었는데, 근본적으로 내 기초가 너무 빈약해서 고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리 선생님 화실로 달려갔다. 많은 미술학과 수재들이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그 속에서 나는 미술학

과 입시를 준비하는 일개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리 선생님은 그리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그리기의 단계를 보여주셨다. 농담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슬프게도 당시 난 농담은 이해했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정수는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림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당시 선생님이 내게 주려 했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게 됐다.

리 선생님께 3개월 동안 소묘를 배웠지만, 실기시험 성적발표 결과는 놀랍게도 소묘 점수가 가장 낮았다. 100점 만점에 겨우 40점밖에 안 됐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수채화, 동양화에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당시 시험에 쓸 붓도 챙겨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기까지 했다.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얼렁뚱땅 문화미술학과에 합격했다.

시작도 너무 늦은 데다 내 그림 실력도 뛰어나지 않은 걸 스스로 잘 알았고, 미술학과 진학 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히 뒤떨어지는 자신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됐다. 나는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많은 동기와 선배들의 재능은 감탄 그 자체였다. 미술학과에 진학한 친구들은 대부분 창작에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술은 모두 진리였으며 달리, 피카소, 세잔 같은 거장이 그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들은 예술 계파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했고, 예술관이 서로 달라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심지어는 크게 주먹다짐하다 원수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별다른 열정도 없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늘 이해가 안 됐다.

나는 순수예술에 별다른 재능이 없었고 열정도 부족했다. 또 앞으로의 직업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학교 2학년 때 디자인과를 선택했고 비교적 실무적인 미술을 공부했다. 이럴 수가! 내가 디자인관련 과목을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공부하는 내내 스트레스도 없고 즐거웠다. 그렇게 디자인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김에 졸업 후 바로 광고회사에 입사했고 그 업계에서 쭉 12년을 일했다.

20여 년 전 광고는 각광받는 직업이었다.

타이완 광고회사에서 처음으로 일했는데 콘티를 작성하는 일부부터 시작했다. 과거 평면 광고를 만들 때, 먼저 사진을 선택하고 담당자가 디자인을 완성하면 고객에게 보이고 통과되면 모델을 써서 촬영했다. 작업할 때면 최초에 그려낸 상품이나 인물은 모두 완벽했는데 최종 결과물에 이르러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당시 나는 ‘삽화로 광고를 제작하면 정말 간단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다시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디라도 가서 배울 생각은 미처 못하고 무던하게 혼자 연습했다. 매일 그림을 끄적거렸고 짧은 글을 써보기도 했다. 그림이 많아지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활동하는 삽화가들이 그렇게 부러웠지만, 많은 젊은이가 그렇듯 나 또한 작품을 올리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다.

당시 리사라는 회사 동료가 내 습작 노트를 보고 나의 꿈을 알게 됐다. 어느 날 그녀는 내 노트를 빌려 가더니 그 길로 <황관(皇冠)>이라는 잡지사를 찾아가서 잡지사 직원에게 나의 꿈과 열정을 역설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내가 잡지에 삽화를 게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내 인생의 첫 삽화 작업이 시작됐다.

처음 받았던 일은 사마중원(司馬中原) 선생님과 라오후이잉(廖輝英) 선생님의 원고였다. 모두 저명한 작가였다. 내가 그 선생님들 작품에 삽화를 그리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다. 하지만 보수로 겨우 300위안을 받았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광고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비교하면 너무 빈약했다.

당시 광고 쪽 일은 바빴고 삽화 그리는 일은 단지 취미일 뿐이었다. 몇 번을 미루다가 다시는 삽화를 그리지 않았다.

3년 후, 우연한 기회에 다시 황관 출판사와 일하게 됐다. 그때는 샤오예(小野) 선생님 책에 삽화를 그렸다. 샤오예 선생님 책이 굉장히 잘 팔려서 덩달아 내 그림도 유명해졌다.

어느 날은 연합보(聯合報) 여성지 주 편집장 홍쉐전(洪雪珍) 선생님이 삽화 작업을 제의했다. 이렇게 신문 지면에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신문의 전파력은 대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시보(中國時報)에서 연락이 왔고 자유시보(自由

時報), 중앙일보(中央日報)에서도 잇따라 내게 문을 두드렸다. 신문 발행 규제 조치가 해제되자 순식간에 신문사마다 많은 지면에 삽화 들어갈 자리가 생겨났다. 삽화 요청이 물밀 듯이 쏟아져서 퇴근 후 매일 그림을 그려야 했다.

삽화를 그리기 시작한 후, 나는 학창 시절 나태했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성실한 자세로 각종 그림 관련 지식과 개념을 공부했다. 어떤 잡지든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안에 실린 삽화를 자세히 뒤적여 보며 선과 사용한 색깔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연구했다. 마침 청핀서점도 이 시기에 생겨서 각종 예술, 디자인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시야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는 고객을 만나거나 회의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나는 명쾌하게 내 디자인의 콘셉트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럴듯한 말로 내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일은 더더욱 못 할 것이었다. 콘티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삽화 작업은 정말 내게 딱 맞는 일이었다. 편집자가 팩스로 원고를 보내오면 나는 그림을 완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작업이 끝난다. 누구와도 소통할 필요가 없었다. 광고회사의 짜증 나는 회의에 비하면 정말 매력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여러 해 동안 쌓인 광고회사 경험이 내 삽화 작업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덕분에 나는 규칙적으로 작업했고 마감 시간을 잘 지켰다. 광고를 설계할 때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해야 했다. 이런 훈련 덕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에서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했고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잘 알았다. 문

학적인 글에 삽화를 그릴 때만 광고회사 경험이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섬세한 감성과 예리한 감각에 의존해야 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당시 광고회사에서 CF를 제작하고 콘티를 그렸던 경험이 내가 그림책을 출판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나는 타이완 광고회사에서 4년 일하고 다음으로 사치 앤드 사치 (Saatchi & Saatchi) 광고회사에서 다시 4년을, 마지막으로 오길비 앤드 매더 (Ogilvy & Mather) 광고회사에서 4년을 더 일했다.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삽화를 그렸다. 그러다 점차 본업에 마음을 못 잡았고 오히려 집에서 그림 그리는 일이 더 재미있어졌다.

이전에는 삽화를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Edward Gorey, Sempe, Shel Silverstein, Micheal Sowa, John Burningham 등 작가들의 작품을 보게 됐다. 나는 이 삽화가들의 작품에 담긴 메시지의 깊이와 위트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 삽화를 그리는 일이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렇게 훌륭한 삽화가, 어린이 동화책 작가들은 나의 우상이 됐다.

그 작가들에게 빠져들었던 건, 처음에는 그들의 작품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실 그들의 창작 태도와 인간적 매력에 더 깊이 매료됐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나 또한 창작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창작이 단순히 선과 색의 조합은 아니라는 사실



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 저변에 깔린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 창작자의 정신세계가 창작에서 무엇보다 훌륭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다.

광고 일이 점점 마음처럼 되지 않자 결국 1994년 봄, 나는 퇴사하고 한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다. 타이완에 돌아오고 나서는 프리랜서 생활을 아주 신나게 즐겼다.

1995년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오른쪽 허벅지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자다가 화들짝 깬다.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부딪혔겠지 하며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웬걸, 사흘 후에는 감각마저 없어졌다.

서둘러 병원에 갔다. 좌골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초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마감 원고가 워낙 많아서 아무리 다리에 감각이 없어도 이를 악물며 택시 타고 원고를 내러 다녔다. 룡중(榮總)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내게 수술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병원 의사인 매부는 수술할 것까지는 없다고 했다. 나는 여러 의사를 찾아갔다. 양의, 한의는 물론 심지어 무면허 의사까지도 찾아갔다. 하지만 내 증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그사이 몸이 그렇게까지 쇠락해 가는 줄은 몰랐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너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아?”라고 말할 정도였다.

삼 개월 후 병원에 갔다 돌아가는 길에 거리 한복판에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아내에게 큰 병원에 데려가 주라고, 아무래도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바로 혈액 과에 입원했다.

검사 다음 날 의사는 침대 말에서 내 골수 속에서 나쁜 것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나는 “암이에요?”라고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바로 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골수 이식 대상을 찾았다. 치료를 시작하자 구토, 발열, 어지럼증, 통증, 오한 등 각종 증상이 돌아가며 나타났다. 화학요법 치료 전부터 이미 매일 밤 오한으로 기침을 했다. 그때마다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침대에서 삐걱 삐걱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첫 화학요법 치료는 한 달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 몸이 약해지면서 화학요법 치료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두 번째 치료 때는 병원에 두 달 동안 누워 있었다. 그동안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평소에는 사소한 문제도 아주 큰 문제가 됐다. 만약 부주의로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상처에도 감염될 수 있었다. 항상 조심하며 돌봐야 하는데 환자와 가족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병은 내게 너무나도 거대한 공포여서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세번째 치료 때는 정말 오랫동안 입원해서 너무 집에 가고 싶었다. 퇴원 전날 밤, 나는 갑자기 피를 토했다. 의사가 이를 알게 되면 어쩌나, 분명 퇴원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밀려왔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래 숨기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퇴원 후, 의사와 간호사가 돌봐주지 않으니 그제야 병마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나는 또 하루를 번 것 같았다. 아내는 세심하고 엄격하게 보살폈다.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작을 통해 병의 두려움을 잊고 슬픔을 달랠 수 있었다.

1998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뜻밖에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갔다. 그 10년 사이 나는 전문 작가가 됐다. 책을 30권 냈고 그 책들은 여러 나라에서 발표됐다. 어떤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어떤 책은 연극 대본으로 각색되고, 어떤 책은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책은 음악으로, 어떤 책은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과 창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 2. 생명 대 발견의 의미

1993년 말 나는 여전히 광고회사에 다녔다. 그해 일에 있어 전에 없던 큰 슬럼프에 빠졌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우연히 지하실에 자리한 한 철학관에 들어가게 됐다. 새까맣게 문신한 가느다란 눈썹과 허스키한 음성의 점쟁이 아주머니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내 앞에 놓인 그릇에는 흰쌀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주머니는 거의 명령조로 내게 쌀알 몇 개를 집으라고 했다. 그녀는 새빨간 손톱으로 쌀알을 이리저리 만지다가 손이 가는 대로 어떤 부호 같은 것을 마구 그려댔다. 그리고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너 너는 남 밑에서 일하지 마. 95년에는 대박 날 거야! 어려운 일도 혼자서 다 이겨낼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도 재물이 굴러들어와. 탄탄대로를 걷고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겠네!” 이런 말에 나는 기꺼이 돈을 냈고 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철학관을 나왔다.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다.

다음 해 나는 12년의 기나긴 광고회사 생활을 끝냈다. 삽화가가 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심플하고 평온한 일상, 하지만 이 정도의 일, 겨우 이 정도 수입만 가지고 어떻게 대박이 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멋진 미래를 꿈꾸며 속으로는 남몰래 1995년이 빨리 오기를 바랐다.

1995년 설이 막 지나고 겨우 2월 하순이 됐을 때였다. 잠자던 중 오른쪽 다리가 뻘뻘 나갈 듯한 통증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서 깬다. 사흘 후 다리에 감각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천진난만하게도 단순히 부주의로 부딪혔거나 근육을 다쳤겠거니 생각했다.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그림도 그렸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나는 날로 쇠약해졌다. 어느 초여름 오후, 진찰받으러 가던 길에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아내는 백지장같이 야윈 나를 부축해서 바로 응급실에 데려갔다.

어버이날 하루 전 저녁이었다. 주치의는 어두운 얼굴로 내가 혈액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넌지시 말했다. 인기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나는 울고불고 소란을 피웠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침대 옆에는 이미 꽃바구니가 가득했고 심지어 이미 시들기 시작한 꽃도 있었다. 나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 구토, 발열, 혼수 상태, 통증...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더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퉁퉁 부어서 커진 얼굴, 매끈하게 벗어진 머리, 초점을 잃고 겁에 질린 눈, 항상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음의 신과 싸우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퇴원하던 그 날은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내려치는 태풍까지 몰려왔다. 나는 누구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저 빨리 병원을 벗어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1995년 나는 아무 일도 못 하고 1인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세상과 격리된 채, 문병도 받지 않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며 매일 많은 의사와 간호사의 간호를 받았다. 끊임없이 헤모글로빈과 혈소판을 수혈받으며 매일 내 백혈구가 건강해지길 바랐다. 사람 혼을 쏙 빼놓았던 그 삶의 전환점이 내 인생에 어떤 깨달음을 주려 했던 건지 종종 생각하곤 한다. 당시 나는 이렇게 미련한 바보였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삼키던 시기에 머릿속은 산해진미로 가득했고, 항상 퇴원만 하면 모든 맛집을 투어 하리라 별렀다.

생명의 변화라는 것은 얼마나 빠르고 잔혹한 것인가. 우리는 그 변화에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지금 여기에 있고 변화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힘겹게 지나온 암 투병 기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나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 됐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중요해졌고, 비범한 일들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됐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그 점쟁이가 예견했던 말들이 용하게도 딱 들어맞았다. 그녀는 후일 내가 어떤 어려운 일도 혼자서 다 이겨낼 거라고 했는데, 정확했다. 병이 주는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재물이 굴러들어 올 거라고 했던 말도 딱 맞았다.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거액의 보험금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점쟁이는 또 내가 탄탄대로를 걷고 인생의 정점을 찍을 거라는 말도 했었다. 역시 정확히 맞았다. 아름다운 아내와 인자한 간호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마치 나를 황제처럼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나는 그 한 해를 거치며 비로소 생명이 지닌 큰 의미를 깨달았다.

당신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음의 온도는 또 누가 조절하고 있는가? 하느님? 자신? 아니면 거리의 누군가?

나는 엄동설한에서 봄의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을 꿔다.  
잠에서 깨니 온몸이 향기로웠다.

(1998년 <중국시보> 게재)

### 3. 나의 장편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재미에서 시작된다. 재미가 있어야 창작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은 여정과 같아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종착지는 결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다.

### 4. 나와 나의 '작은 친구들'

1994년 봄, 나는 퇴사하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삽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기간 나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작은 친구들'을 그렸는데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는 물론, 크고 작고 뚱뚱하고 마른 다양한 사람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괴물도 그렸다. 글 내용에 맞춰 나의 작은 친구들은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보여줬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그지없이 기쁜. 나는 그들의 무표정을 자주 즐겨 그렸다. 하지만 어떤 자태와 표정이든 꼭 긴 시간 부단히 연습했다.

처음에는 내 그림 속 어느 '작은 친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작은 친구들은 그저 내 생계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창백한 얼굴의 무정한 맹수



조련사처럼 채찍을 휘두르며 밤낮으로 그들을 조련했다. 작은 친구들의 실력이 출중해져서 하루빨리 무대에 오르기를. 박수갈채받으며 내게 돈을 벌어들여 주길 기대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작은 친구들에게 어떤 애정도 쏟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 나는 나.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지칠 대로 지쳐 병이 났다.

병은 심각했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 세상과 격리된 채 죽음의 신과 사활을 건 싸움을 했다. 꽤 오랜 시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병문안도 받지 못했다. 물론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떠다니는 흰 구름,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 심지어 종종 창가에 머물다 가는 평범한 비둘기만 보아도 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부자유의 서러움을 오롯이 느꼈고, 내 ‘작은 친구’들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나는 후회했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건강이 날로 호전되어 다시 울지 않게 됐을 때, 나는 내 작은 친구들에게 그들만의 이야기를 지어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에 내 마음도 함께 지어 넣었다. 그 이야기들은 조금은 달콤하고 조금은 감상적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은 창작 과정에 조금씩 천천히 치유돼갔다.

‘작은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생겨났다. 나는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길 바랐다.

작은 친구들은 이미 내가 되었고, 나 또한 그들이 되었다.

(1998년 11월 28일 <중앙일보> 문화면 게재)

## 5. 신비로운 공간의 부름

*바람이 커튼을 열자 꿈이 찾아왔어요.*

*수줍고 외로운 소녀는 토끼를 따라 꿈의 꿈속에서 즐겁게 놀았죠.*

*토끼는 안녕이란 말도 없이 쓸쓸한 도시를 떠나버렸어요.*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배트맨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이번엔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Secrets in the Woods

1998.10.01

나는 40이 돼서야 창작을 시작했다. 이 책이 내 첫 작품이다.

창작을 시작할 때는 사실 창작이 뭔지 잘 몰랐다.

나는 창작에 대해 항상 숭고한 경의를 품어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책을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누군가 제의를 해도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고, 책을 낼 감량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과 그 책의 작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특히 그림책과 그림책 작가들을.

큰 병을 치르고 난 후,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1997년 초여름, 위산(玉山) 출판사 사장 웨이수진(魏淑真) 선생님이 내게 원고를 요청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출판 요청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당시 내가 10여 년 동안 그려온 삽화 작품을 한데 모아서 다음 해에 출판하기로 계약했다. 막상 내년이 되면 겁먹고 도망치는 건 아닐지 걱정하면서도 우선 계약부터 하고 도장도 찍었다.

1998년 음력설이 지나고 그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단지 과거에 그렸던 작품을 한데 모아놓기만 했을 뿐인데도 내 창작욕에 점점 불을 댕겼다. 나는 갑자기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 졌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야기의 시작이 항상 가장 어렵다. 막연하게 그렸던 그림들을 뒤적이다가 작은 그림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1996년. 그것은 샤오예 선생님의 문화면 칼럼에 그린 삽화였다. 칼럼이 발표되자 친구들은 모두 좋다고 얘기해 줬다.

나는 그림을 반복해서 꺼내 봤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이 작은 그림을 다시 크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숲속에서 경쾌하게 뛰노는 여자아이는 누구일까? 그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나무판자를 밟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여자아이는 외로이 혼자인 걸까? 곧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될까? 실바람 불어오는 오후일까? 보슬비 살랑살랑 내리는 해 질 녘일까? 아이는 왜 혼자 숲속에서 뛰놀고 있을까? 아이의 가족은 그리고 집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이는 즐거울까? 슬플까? 쓸쓸할까?

이 그림 한 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줄지어 쏟아냈다.

이른 아침마다 나는 조용히 창가 책상에 앉아 인내심 있게 여자아이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갔다. 답 하나를 찾으면 정중하게 그림 한 장을 그렸다. 어떤 날은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이틀이 지나갔다. 또 어떤 날은 일주일 일을 꼬박 보내기도 했다.

한 장을 다 그리고 나서야 다음 그림을 고민했다. 사전에 이야기의 틀을 완성하지 않고, 시작과 결말을 미리 설정하지도 않았다. 한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교차하며 나아갔다.

석 달이 지나고 그림 서른두 장을 담은 책 한 권을 완성했다. 마치 도화지 위에 신비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듯했다. 나는 외로운 여자아이를 따라 휘파람 불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토끼를 만났고 우리는 즐거이 장난치며 놀았다. 함께 비밀의

단서를 찾고, 함께 고민하다 또 함께 깔깔깔 웃기도 했다. 함께 하늘 높이 날아 보았고, 다시 함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숲속 나무줄기를 하나하나 곧고 바르게 그렸다. 마치 초침이 일초 일초 지나간 흔적처럼... 시간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숲이 생겨났다.

홀로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스대지 않고 편안하기만 했다.

그때 당시 몸은 자주 피로감을 느꼈을지라도 마음은 즐거웠다. 창작 덕분에 내 병은 호전됐고, 외롭고 아픈 마음도 차츰차츰 치유됐다.

*잃어버린 꿈을 보았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지하동굴에 들어가 보았죠*

*작고 포근한 방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었어요*

*우리는 숲속 꽃밭을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나는 나의 꿈과 즐겁게 놀았어요*

*우리는 날아올랐고*

*바람을 품으며 내달렸어요*

*바람이 내 머리칼을 마구마구 헝클었어요*

6월에 완성한 삽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방문했다. 당시 나는 그림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글을 써넣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판사 총편집장은 아무래도 독자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몇 글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서점에 달려가 시집을 왕창 샀고, 글쓰기의 영감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



책 전체에서 등장하는 토끼는 나중엔 내게 중요한 캐릭터가 됐다.

나는 왜 그렇게 토끼를 좋아할까? 기다란 귀와 경쾌하고 날쌔게 뛰어오르는 모습

때문이라. 토끼는 내게 정말 신비로운 동물이다.

그 동그란 눈은 알 수 없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린진메이(林真美) 선생님을 알게 됐다. 진메이 선생님은 경험이 풍부한 아동문학 전문가였다. 선생님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독서 행사도 자주 열고, 각종 독서 모임도 주최했다.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눈으로는 그림을 보고, 귀로는 이야기를 듣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크게 소리 내어 이야기를 읽게 하면서 소리의 수많은 운율과 변화까지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그림책을 읽히니 아이들은 무척 재미있어했다. 내게도 큰 도움이 됐다. 어차피 나는 글도 못 쓰니 직접 문장을 ‘낭송’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 오후, 바람은 살랑살랑

나는 잠이 들었죠

새하얀 커튼이 하늘하늘

토끼가 찾아왔어요

창가에서 휘파람 불며 나를 부르네요

문을 열고 나가니 숲은 고요하고

햇빛은 따사로워요

언제 숲속을 뛰놀았더라? 그건 아주아주 오래전

토끼가 말했죠 “준비됐어?”

나무 뒤에서 나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나는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 그림을 꺼내놓고 보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낭독해가며 문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매일 첫 문장부터 낭독을 시작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어나가다 결국은 완성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끝말잇기 하듯 그림을 그렸고, 낭송하며 글을 썼다. 이렇게 내 처녀작이 완성됐다.

(낭송하며 글을 쓰던 날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내 아내다. 아내는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나를 인내심 있게 지켜봐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걸복걸하는 내 곁에서 감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눠야 했다. 만약 아내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다면 내 창작의 길은 진작에 끝이 났을 것이다.)

책이 나온 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이 책은 흑백이에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사실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전전긍긍하며 한 획 한 획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다. 흑여나 실수로 죄다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컸다. 초고를 완성하고 보니 심플하고 깔끔한 것이 기대보다 괜찮았다. 그 위에 색을 입히면 과해 보이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야기 자체가 고요하고 신비로워서 흑백의 색채가 마치 더 많은 상상의 공간을 내주는 것만 같았다.

또 누군가가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사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마음속 장면을 그렸을 뿐이다. 그 그림들은 꿈같고 예언 같다. 평온한 모든 새벽 같고, 나타나길 바라 마지않던 장면 같기도 하다. 힘겹던 그 시기 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 유년 시절 기억의 단편일지도 모르겠다. 또 어쩌면 아기포대기 속 내 딸의 미래에 대한 상상일 수도 있겠다.

*토끼야, 고마워*

*오늘 오후는 정말 즐거웠어*

*수요일 오후, 바람은 살랑살랑*

*나와 나의 꿈은 모두 스르륵 잠들었죠*

*토끼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꿈이 없는 도시는 정말 쓸쓸해요*

이 부분은 다시 봐도 여전히 감상적이다. 삶 속의 많은 것들이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일 테다.

사람들과 미처 인사도 못 나눈 채 떠났던 그때, 그때는 나도 정말 두려웠다.

다행이다. 이건 단지 내 첫 책일 뿐이고, 창작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 말이다.

## 6. 마법 같은 순간을 기억해

*미소 짓는 물고기를 본 적 있나요?*

*강아지처럼 나만 바라보고 고양이처럼 따뜻하고 연인처럼 다정한 물고기...*

*우리는 어느 사이 이야기에 빠져들어 물고기와 함께 웃고, 물고기 주인을 따라  
출출 거예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주인과 함께 바다로 돌아갈 거예요.*

*미소 짓는 물고기가 우리 마음속으로 유유히 들어왔고, 우리는 물고기 주인처  
럼 미소 짓는 물고기가 됐어요.*

A Fish that Smiled at Me

1998.10.01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하기도 하다.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고, 이름도 잘 못 외운다. 책을 사서 돌아가면 그 책이 이미 집에 있곤 했다. DVD도 자주 빌려봤는데 다 보고 나면 언젠가 본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알고 보면 이미 봤던 영화였다. 그러면 속으로 “같은 걸 또 빌렸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주지?”라며 직원을 원망하곤 했다.

하지만 내겐 장면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 현실에서 본 장면이든 상상 속 장면이든 감동적이기만 하면 바로 기억 속에 보관돼버린다. 장면은 암실에서 현상

한 사진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차 선명해지고 밝아져서 작은 부분조차 점점 커진다.

이런 장면들은 아무 때고 등장한다. 잊은 줄 알았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른다.

한동안 벽 전체를 가득 메운 거대한 어항 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어항 속에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만 쓸쓸히 왔다 갔다 하고 어항 밖에서는 과묵한 남자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장면이었다.

또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어항이 밤중에 도시를 뚝뚝 떠다니는 장면. 그리고 외로운 한 남자가 어항을 바짝 쫓아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은 느릿느릿 흐르고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이 두 장면에서 시작해서 금방 하나의 선명한 이야기로 중심을 잡았다. 반나절 만에 이야기 전체를 장면별로 나눠서 콘티를 그려냈다.

당시 막 완성한 <숲속의 비밀>은 비교적 세밀한 화법을 사용했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신중하게 그려서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이미 창작욕이 활활 타오르던 때라서 이야기 전체를 어서 얘기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그러다 보니 경쾌하고 자유로운 선을 써서 빠르게 스케치했다. 선염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색채가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그렸다. 이 책은 약 한 달 반 걸려 완성됐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다.

병에 걸리기 전, 나는 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생명의 무게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당연했다. 이 세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연민을 느끼지도 못했다. 하지만 병을 앓은 후로는 너무 예민해지고 움츠러들었다. 모든 일이 두려웠고 작은 일에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책 속 중년 남성은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한다.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다.  
(예전의 나처럼)

그는 소극적으로 인생을 대면하고 일상을 살아나간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예전의 나처럼)

어느 날 그는 어항 속에서 그에게 미소 짓는 물고기를 보게 된다. 그는 물고기에게 빠져들었지만 당황스럽기도 했다. 물고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매일 그 미소와 함께했다.

그는

*강아지처럼 그만 바라보고*

*고양이처럼 따뜻하고*

*연인처럼 다정한 물고기를 가졌어요*



이 이야기 속 도시의 지도를 작품 속에 담지는 않았지만,  
나는 애초에 주인공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스케치해놓았다.  
한 중년 남성은 매일 출퇴근 할 때마다 수족관 앞을 지나가게 된다.  
그는 매번 수족관을 들여다보며 그에게 미소 짓는 물고기가 있는지 찾아본다.  
도시 외곽에는 낮은 다리가 있다. 다리를 건너면 다리 양쪽으로 오동나무가 서 있고  
길 끝머리에는 어릴 적 숨바꼭질하던 숲이 있다.  
숲 너머에는 해안가까지 펼쳐진 들판이, 그리고 들판 너머에는 광활한 바다가 펼쳐진다.  
주인공은 지도 위 노선을 따라 그의 물고기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간다.  
이야기는 이러한 지도 위에서 느릿느릿 전개된다.

잠들기 전, 그는 장난스럽게 그의 물고기에게 뽀뽀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뽀뽀요, 쓸쓸한 뽀뽀인가!

이건 하느님의 뽀뽀다.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물고기 한 마리를 봤어요. 초록색으로 빛나는 물고기예요. 방안을 뚫뚫 떠다니는 나의 물고기.*

*물고기는 우아하게 공중을 떠다니고*

*나는 그 뒤를 허둥지둥 쫓아가요*

*나의 물고기를 잃을까 두려워요*

*나는 초록빛 물고기를 따라서*

*한밤의 거리를 한가로이 거닐었어요.*

‘미소 짓는 물고기’에 어떤 색의 빛을 입힐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다. 파란색을 쓰자니 어두운 밤 도시 속에 묻혀버릴 테고, 노란색은 너무 달처럼 보이거나 등불 같았다. 빨간색은 위험한 느낌을 지닌 색이라 불안감을 줬고 색깔의 대비도 너무 강렬했다.

유일하게 초록색이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로웠다.

초록색 물고기 덕분에 그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할 수 있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나요?

모두 멋진 꿈을 꾸고 있을까요?

달님을 올려다본 지도 참 오래됐죠, 별님에게 소원을 비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이 책이 인쇄에 들어갔을 때,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함께 화련(花蓮)에 돌고래를 보러 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났다. 처음으로 바닷가까지 갔다. 배에 앉아서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물을 보며 열심히 돌고래를 찾고 있을 때였다. 나는 선글라스 뒤로 두 눈 가득 글썽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다. 내 그림 속 세계가 이렇게 생생하게 내 눈앞에 펼쳐지다니. 마음속에서 나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나에게 미소 짓는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다.

이 책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바닷물로 뛰어들자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반드시 내려놔야만 다시 살 수 있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결말이 열려있다. 남자 주인공은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자신도 점점 초록색으로 빛나며 공중을 떠다닌다.

<숲속의 비밀>과 <미소 짓는 물고기>가 출판된 후, 관심도 많이 받고 보도도 많이 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찌면 당시 출판 시장에 이런 종류의 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예전에 사람들은 책에 그림이 많으면 만화책이나 어린이 그림책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이나 보는 책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이 그림책을 정말 좋아했지만 내 삽화의 독자는 항상 성인이었다. 아이를 이해하기에는 내 딸도 너무 어렸고 나는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잘 몰랐다. 한편으로는 ‘성인을 위한 그림책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나처럼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서점에는 성인을 위한 그림책 코너가 거의 전멸이었다. 그래서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내 독자층은 성인이었다.

일부러 판본을 작게 하고 페이지 수를 늘려서 딱 보기에 ‘성인 독자를 위한 책’처럼 만들었다. 내 책을 일반도서 진열대에 놓고 목표 독자들과 친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숲속의 비밀>과 <미소 짓는 물고기>가 출간된 후, 많은 서점에서는 여전히 이 책들을 어린이 그림책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그 해 <숲속의 비밀>은 중국시보와 민생보에서 ‘올해 최고의 어린이 도서’로 뽑혔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연합보에서 ‘최고의 어린이도서’ 상을 받았다. 기쁘긴 했지만 나는 좀 아쉬웠다.

책을 출판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황춘밍(黃春明) 선생님과 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가 끝나고 선생님은 이란(宜蘭)으로 급히 돌아가셔야 했다. 형제호텔 앞에서 쭈뼛거리며 선생님께 내가 책 두 권을 냈고 내용은 어떠하다고 말씀드렸다.

황 선생님은 나의 두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해주셨다. 독자의 사랑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며, 더욱 노력하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나는 정말 기뻐다. 난징동루(南京東路) 횡단보도를 짱충짱충 뛰며 건너던 그 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후에 강연할 때마다 내 작품을 소개할라치면, 항상 <숲속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바로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로 넘어갔다. 나는 <미소 짓는 물고기>를 감히 언급할 수 없었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내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때의 광경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시기에 의사는 감염 문제를 걱정해서 병문안은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커튼을 열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 인사 밖에 못 했다. 그 투명한 유리창이 바로 어항의 유리처럼 세상을 둘로 나눠 놓고 있었다.

나는 어항 속에 갇혀 쓸쓸하게 오가는 그 물고기 같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암 투병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그려내지 못했을 거다.

여러 해가 지나고 한 번은 타이완 대학교 호스피스 병동 초청으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내 작품을 낭송했다.

나는 병원 공포증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내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암 투병의 어둠 속에서 조금은 벗어난 자신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병원 냄새를 맡고 병실 풍경을 보자 수년 전 비슷한 광경 속에 있었던 내 쓰라린 기억이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병마와 사투 중인 환자들을 마주하고, 나는 이 책을 펼쳤다. “나는 물고기를 보았어요. 내게 미소 짓는 물고기를...” 겨우 한 문장 읽었는데 이미 목이 메어 더 읽을 수가 없었다.

낭송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내가 더 큰 아픔과 절망을 안긴 건 아닌지... 분명 ‘저 작가 정말 이상하군’이라고 생각했을 테다.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미소 짓는 물고기>는 투병 생활 중에 느꼈던 내 감정들을 그려냈는데 생각보다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나자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께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항상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핀잔을 늘어놓는다고 말이다. 그런데 노 선생님은 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다.

다른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책이 외로운 한 남자가 미소 짓는 물고기를 만나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게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나는 얼마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망망대해를 마음껏 노닐고 싶었는가.

이런 책을 지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이 책을 내 주치의였던 쉬후이치(徐會棋) 선생님과 7번 병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바친다.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7. 변화하는 것들의 아름다움

*그녀는 항상 왼쪽으로 가고, 그는 항상 오른쪽으로 간다. 그들은 한 번도 마주  
친 적 없다.*

*도시의 수많은 사람처럼 평생 만나지 못 하지만, 알고 보면 늘 함께 살고 있다.*

*인생에는 항상 수많은 '우연'이 있는 법,*

*두 개의 평행선이 결국 만나는 날이 올지도...*

Turn Left, Turn Right

1999.03.01

책 두 권을 출간하고 나자 점점 창작에 자신이 생겼다. 책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숲속의 비밀>과 <미소 짓는 물고기>는 서점에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새 책을 출간해 '성인 그림책'이라는 장르로 자리를 굳히고 싶었다.

사실 <미소 짓는 물고기>를 쓰기 전부터 이미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의 모티브는 있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가 사이먼 후미의 작품 같은 러브스토리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러브스토리는 섬세한 묘사가 많아서 아무

래도 소설이나 영화 또는 만화같이 다차원적인 방식으로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그림책으로는 표현하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보니 고독한 남자나 쓸쓸한 여자가 홀로 있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신문에 만화 형태의 삽화를 실은 적이 있다. 남녀 한 쌍이 설원 위에 멀찍이 떨어져 마주 서 있고 함박눈이 흩날리는 장면. 그들은 달려 나가서 뜨겁게 끌어안지 않고 오랫동안 제자리에 선 채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런 장면이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갑자기 러브스토리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영원히 서로를 찾지 못하고 슬퍼하는 연인….

주제를 찾고 나자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체 스토리를 명확하게 만들어 내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다. 그때가 정말 최고로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엇갈리는 장면을 많이 그렸다. 각자의 쓸쓸함, 각자의 한숨. 그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스케일이 커졌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찾지 못하고... 그런데 그다음은?



이 만화가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 그림을 결말로 하여 거슬러 올라가며 전개된다.

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할 이유를 찾지 못 하고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요란한 전기 드릴 소리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자주 했지만, 나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진동 소리는 바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와 겨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올 것이다. 바로 이 벽 너머에. 하지만 과거에 누가 살았고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일로 나는 ‘공간’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다. 곧바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작업 도중 손 놓았던 작품에 접목했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살지만 각자 출입구가 다른 건물에 사는 것으로 두 남녀 주인공을 설정했다.

내 친구를 모티브로 한 남자 주인공은 바이올린 연주자다. 그는 바이올린 신동으로 4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 성인이 된 후에는 프리랜서로 살아간다. 그는 이 도시에 희망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상심하기도 한다. 소설 번역가인 여자 주인공은 내 아내의 직업을 참고했다.(여자 주인공은 생일도 내 아내와 같은 날이다.) 두 사람은 직업과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다. 한 사람은 아침에 나가고 한 사람은 밤이 돼야 움직인다.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엇갈린다.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공간 개념이 생기고 나니 심플한 그림책 형식으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한 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글도 이미 다 써둔 상태였다. 기존 작품과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숲속의 비밀>과 <미소 짓는 물고기>에서는 그림을 먼저 완성하고 나중에 글을 지어 넣었다. 이야기 속 시간도 더는 ‘짧은 한 때’에 멈추지 않았다. (<숲속의 비밀>은 오후 만나질 동안 있었던 이야기고, <미소 짓는 물고기>는 대략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의 시간을 더 길게 늘렸다.

앞의 두 책이 ‘정서’와 ‘분위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책에서는 ‘생활 속 디테일을 파고드는 것’에 중점을 두려 했다.

이 책을 작업할 당시에는 외출할 때마다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다. 공사가 끊이지 않는 도로, 오래된 건물은 계속해서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은 우후죽순 우뚝우뚝 솟아나고... 그때의 나는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했고 매번 외출할 때마다 마치 온몸의 세포로 도시 곳곳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는 어느 한 도시를 특정해서 사랑의 무대로 설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대도시의 모습들이 어렴풋이 드러나도록 작업했다.

공간 외에도 시간과 온도가 있었다. 나는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주인공들의 감정 기록을 넘지시 내보였다. 가을에는 그들이 낙엽 지는 거리를 배회하는 그림을 그렸고, 성탄절에는 즐거운 축제 속에서 그들만 쓸쓸하게 떠나는 장면을 그렸다. 그리고 설에는 시청 광장 앞에서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때 내게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두 주인공과 함께 나누려는 의리가 있었다.

나는 독자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랐다. 사랑을 만나지만 다시 잃게 되는 연인을, 차갑고 무관심한 도시를, 즐거웠고 또 서글펐던 순간을...

11월 11일 오후, 간간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1월 19일 겨울 햇빛이 그림자를 더욱 길게 드리웠다.

나는 여전히 낭송하면서 글을 썼다. 내 글을 영화 속 자막이라 상상하며 독백 하듯 읽어갔다. 아주 품위 있게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까지 틀어놓고는 말이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는 내게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맘에 들었다. 남자는 대부분 책의 오른쪽 지면에, 여자는 거의 왼쪽 지면에 배치했다. 응시, 정지, 인물 이동, 동선, 연출 등 “카메라 렌즈”의 위치도 각별히 고심했다. 그림책

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오묘하고 간결했다. 다른 어떤 형식도 그림책을 능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작가’로서 주도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봤다. 나는 남녀 주인공과 각각 따로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오후에 남자 주인공은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여자 주인공은 카페에 간다. 저녁에는 남자 주인공이 레스토랑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여자 주인공은 밖에서 고양이와 놀고…。 나는 언제고 그들이 만나지 못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물론 언제고 그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책 속의 인물들도 나름의 발언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내가 발견한 그들의 운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찾게 하려고 사람으로 가득 찬 장면을 그렸다. 그 그림은 독자와 작품 속 인물들의 숨바꼭질 놀이 말고도 한 가지 메시지도 전달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며, 타인은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각자가 아무리 재미있는 사연을 갖고 있다 해도 카메라 렌즈를 멀리 그리고 높이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게 다 병을 앓고 난 후 깨닫게 된 것들이다. 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우울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았다. 하지만 만약 그때 새 한 마리

가 병원 위를 날아갔다면 그 새에게는 고작 해봐야 회색빛 건물, 그리고 창가에  
어른거리는 사람 그림자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내 이야기 속 연인  
처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리 사무쳐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그  
들은 여전히 그저 작고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림에  
도 반드시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사람을 그리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재미있기도 했다. 그 사람들이 다 내 친구 같았고 함  
께 손잡고 이 불쌍한 연인을 놀려먹는 것만 같았다.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마도 내 성격이 너무 급한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을 작업할 때는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 나무를 그리고 싶으면 내가 상상  
하는 나무를 그렸고 너무 엉뚱해서 웃음거리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다. 나는  
당시 시각적인 정교함보다 감정 전달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  
었다. 책을 완성하고도 이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  
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W. Szymborska)의 이 시구를 읽게 됐다.

*그들은 서로 믿고 있다*

*갑작스런 열정이 자신들을 묶어 주었다고*

*그런 변하지 않는 신념은 아름답다*

*하지만 변화하는 것들은 더욱 아름답다*

오래전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사실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완성하고 다시 읽었을 때는 엄청난 전율을 느꼈다. 알고 보니 시인은 이 짧은 몇 줄로 내가 하려던 말을 다 하고 있었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는 총 132페이지다. 어린이 그림책이 보통 24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량 되는 것에 비하면 이 책은 너무 두꺼웠다. 당시 출판사 사장은 내 책 한 권으로 다섯 권도 충분히 출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너무 많이 그리지 말라고 권하기도 했다. 되도록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림책 규격에 맞게 64페이지 이내로 맞추라고 말이다. (후에 내 책이 해외로 팔릴 때, 책이 두꺼워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소재와 대상 독자 모두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자꾸만 많이 그리게 되는 걸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순전히 아직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것이 창작자의 지독한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출판사에서는 사실 책 제목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제목이 사랑의 주제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뿐더러 정치색도 느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출간 전에 러브스토리를 담은 책을 낼 거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비웃었다. 딱 봐도 내가 무슨 낭만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데다, 앞서 낸 두 책이 참신하고 통속적이지 않은 동화였기 때문이리라. 그런 내가 이렇게 통속적인 주제로 방향을 전환하다니….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스스로는 순식간에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내 지인들은 다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결국 책을 순조롭게 출간했고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한 독자가 내 책 덕분에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내 책 속의 주인공 처럼 그 독자는 살면서 남편과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항상 엇갈렸다고 한다. 그러다 내 책을 읽고 나서 생활패턴을 바꿔봤더니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 여고생은 내게 사인받으며 이런 말을 했다.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아빠가 떠나던 날 저녁 엄마에게 이 책을 읽어줬다고. 그렇게 엄마랑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며…. 고개를 들어 여자애를 봤을 때, 그 애는 눈가가 벌게져서는 뛰어가 버렸다.

많은 독자가 내게 피드백을 보내줬고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연인에게 선물했다.

“단순한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라고 많은 독자가 말했다.

나는 독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뻐다.

책 속 내용 중에 상대의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가 빗물에 젖어버린 장면이 기억난다. 이 부분을 그릴 때 정말로 종이에 물을 묻혀봤다. 여러 번 실험해보니 이게 사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드라마틱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후에 많은 독자가 이 장면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고 얘기해줬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었다.

여러 해 전 내가 아직 미혼일 때, 미국에 놀러 갔었다. 그때 회사 동료가 편지 한 통을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뉴욕에서 정신없이 노느라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가 다 돼서야 이 편지가 떠올랐다.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1년 후에 타이베이에서 아내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다 그때 편지의 수신인이 바로 내 아내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생각해보면 그때 동료가 내게 편지를 부탁했던 건 어쩌면 아내와 만나게 해 주려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내는 설사 그때 내가 직접 편지를 전하러 왔대도 못 만났을 거라고 말했다. 당시 아내는 유럽에 있었고 뉴욕에 돌아와서 우편함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편지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단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놀랍다. 친구의 노력에도 우리는 못 만났지만, 1년 후에 결국 만나게 됐으니 말이다. 영화감독인 친구 리환승(黎煥雄)이 아내와 나의 만남이야말로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의 원조가 아니겠냐며 말했다.

*그런 변하지 않는 신념은 아름답다*

*하지만 변화하는 것들은 더욱 아름답다*



## 8. 가장 외로울 때, 제일 따뜻한 친구

한 소년이 떨어진 달님을 주웠어요. 소년은 마음을 다해 달님을 돌봤어요. 달님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루하루 자라나고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달님이 온 곳을 기억해내길 기다렸어요.

달님이 사라진 도시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외로운 소년과 달님, 둘만의 비밀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The Moon Forgets

1999.10.01

요양하던 시기에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마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단전호흡을 수련했다. 그게 내 유일한 '실외 활동'이었다.

학교를 사방으로 둘러싼 아파트가 시야를 가렸다. 여름 말고 다른 계절에는 운동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밤하늘에 밝고 동그란 달만이 나와 함께 했다.

1999년이였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이 무서웠다. 단전호흡을 연습하는 밤에는 자주 달을 올려다봤다. 마음속에 담아둔 많은 이야기를 모두 달에게 털어놓았다.

하늘이 맑은 날은 달이 밝게 빛났고 구름 낀 날은 달이 숨었다 나타났다 했다.  
어떤 날은 노랗고, 어떤 날은 잿빛이고….

이런 날들이 5년 동안 지속됐다.

나는 달에게 이야기 하나 빚진 걸 떠올렸다.

책 세 권을 출간하고 나자 “이야, 처음엔 쓸쓸한 여자아이, 그다음엔 쓸쓸한 중  
년 남자랑 물고기, 이제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외로운 두 사람  
이라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젠 밝은 내용 좀 써봐!”라며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나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전호흡을 연습하던 어느 날 밤, 달을 올려다보다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만약 어느 날 달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소년을 만난다면? 그리고 달이 고무공  
처럼 소년의 주변을 굴러왔다 굴러갔다 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달과 소년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내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또 이 이야기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본디 죽음은 조금씩 천천히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인생을 천천히 계획하며 살아갈 시간이 늘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마치 전등 스위치 같았다. 그저 가볍게 한 번 눌렀을 뿐인데, 그 찰나 어둠 속에 묻혀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예전에 일하던 광고회사 동료가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에 회사 옥상에서 조용히 뛰어내렸다. 아내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남겨두고.

한 친구의 남편은 베이징에 출장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두 아들을 남기고.

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전화해 위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말이다. 당신이라면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는가?

이 두 사건이 준 큰 충격으로 진행 중이던 작업방식이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 그래서 <달님은 잊었어요>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로 채워졌고, 더욱 마음을 울리는 책이 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부주의로 고층빌딩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천지가 뒤집히고 세상이 고장 났다. 그리고 달님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름 바람 살랑살랑  
흔적은 찰나에 사라지고  
기억을 잊어버렸어  
남은 건 미미하게 움직이는  
희미한 나무 그늘...

아빠가 없는 소년은 숲속 가까운 연못에서 작은 공을 주웠다.

소년은 공을 집으로 데려와서 반려동물처럼 소중히 보살폈다. 공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줬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죠  
빛을 잃은 소년을 위해  
보드랍고 아름다운 빛을 가져왔어요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났던 적이 있다.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빠졌다. 나는 그 경험을 이 이야기 속에 그려 넣었다. 정전이 있던 날 밤은 소년과 달님의 신비롭고 고요한 시간으로 변신했다. 외롭지만 따뜻한.

은 세상에 불빛이 사라지던 날 밤  
그들은 옥상에 올라가  
어두운 세상의 이벤트를 조용히 감상했죠

<달님은 잊었어요>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소년을 이해해주지 않고 점점 친구들이 떠나가는 장면, 선생님이 소년에게 더는 달님을 학교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을 그렸다. <미소 짓는 물고기>에서 주인공이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나자 마음이 편안해졌듯이, <달님은 잊었어요> 이야기 속 소년 또한 달님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다. 이것은 소년이 생명의 출구를 찾는 방식이다.

나는 소년에게 검은색 ‘밤의 옷’을 입혔다. 소년은 달님에게 익숙한 정경을 보여주고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람들은 정말 달님이 돌아온 줄 알았다.

하늘에 달님이 돌아왔다. 소년은 여전히 아쉬워하며 달님을 위해 우산을 펼쳤다.

비바람이 몰아쳤고 소년은 슬퍼하며 달님에게 물었죠. “여전히 우산 속 빗소리가 듣고 싶니?”

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소년은 달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비는 퐁퐁퐁 퐁퐁퐁 경쾌한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달님은 잊었어요>는 921 대지진, 911 테러 사건 발발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던 시기에 출간됐다. 이 작품은 뜻밖에 많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했다. 많은 독자가 인터넷에서 ‘내가 읽은 지미’를 공유하면서 다들 <달님은 잊었어요>가 제일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했다. <달님은 잊었어요>가 많은 청소년의 외로운 마음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책에 대한 수많은 감상을 보자 큰 감동이 밀려왔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처럼 감상이 비슷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었다.

반면 생각 외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달님은 잊었어요>의 그림과 글은 겹친 듯 안 겹친 듯 모호한 평행선처럼 어떤 때는 긴밀하게 이어진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둘 사이의 결합이 느슨한 것 같기도 했다. 내 그림책은 늘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달님은 잊었어요>에서는 그림과 글이 각자 독립적인 생명을 갖고, 단순히 그림에 글을 덧붙인 형식은 아니었다.

이 책은 특히 구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 앞뒤 페이지의 대조와 호응,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와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이들은 모두 관련돼있다. 이런 구성이 매우 뚜렷한 건 아니지만, 독자들은 은연중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년과 달님 이야기 외에 한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에 걸리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는 유년의 공백기로 돌아간다. 그와 달님은 뭔가 잊어버린 듯하다. 다시 조금씩 잊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데... 여러분은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가 달님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의 다정한 친구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년과 달님 외에 왜 스토리 구조를 하나 더 추가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줄곧 말하지 못한 위로와 제때 위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 이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작품들은 ‘타이완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미소 짓는 물고기>의 주인공이 외국인 같거나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에 나오는 장면이 다른 어느 도시에서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어찌면 육한 마음에 일부러 <달님은 잊었어요> 속에 불법 건축물을 많이 그렸는지도 모르겠다(정전되던 날 저녁 장면). 관두대교도 그려 넣었다.

이 책에는 일상 속 많은 감상을 담았고 생활 속에서 소재를 채집했다. 환경보호 문제, 아이들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문제, 언론 매체의 역할, 한 부모 가정 등등이 그렇다.

창작 과정은 순조로웠고 머뭇거린 순간도 딱히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 매우 깊고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원고를 안고 출판사로 가던 길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이제는 이 소년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이 책이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될 거라는 생각에...

독자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칠 때를 기억할 지 모르겠다. 문이 한 짝 있었고, 문밖에서 미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던 모습을 말이다.

달님은 어린이를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이것이 곧 모든 이야기의 발단...



## 9. 시인에게 바치는 장미 꽃다발

눈이 안 보이는 소녀는 열다섯 살 생일날의 도시를 탐험하기로 한다.  
조심조심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간다. 낯선 역에서 출발해 또 다른 낯선 역으로  
향한다.  
탐험 중에 소녀는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을 떠올리고, 짜깁고, 느끼고, 더듬는다.  
소녀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출구를 발견하기도 한다.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며 지하철을 오색 찬란한 상상의 세계로 만들어 자신  
의 무료함을 달랜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답을 찾아간다.

Sounds of Colors

2001.01.01

타이베이에 아직 지하철이 없었을 때 홍콩, 뉴욕, 도쿄 등 대도시를 갈 때면  
지하철 타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

지하철 입구와 출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신비의 그물처럼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정말이지 지하철이 좋아 죽겠다! 지하철이라는 글자로도, 이미지로도,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으로도 말이다. 지하철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후에 내가 지하철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사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그림책으로 엮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림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은 반드시 표현과 전개에 있어서 시각적 연출 공간이 필요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큰 토끼가 여자아이를 태우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빛나는 어항이 밤의 도시를 떠다니고, 분리된 각자의 공간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연인처럼.

지하철과 관련된 그림책을 그리기로 했을 때, 나는 모든 지하철역을 오색찬란한 타일 조각으로 이어 붙이고 싶었다. 모든 열차 안에 귀여운 동물 친구와 동화 주인공을 가득 태우고, 내가 매번 지하철을 나올 때마다 보게 되는 각양각색의 신기한 광경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양한 풍경의 출입구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도시에서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은 놀랍게도 황량한 사막이라거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역으로 걸어 들어가면 넓고 넓은 바다에 고요한 섬이 나타나는 식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배치된 장면은 시각적인 재미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났더니 또 비슷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저 신비로운 상상만 있고 지하철로 들어가고 나오는 행위의 반복만 있을 뿐이었다. 그다음은?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쁜 그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상상이라 할지라도 피로감만 줄 뿐이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한 비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라도. 하지만 그다음은? 결국에는 슈퍼맨이 인간 세계에 뛰어들어 악당과 맞서 싸우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전개돼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인 ‘나’가 끊임없이 상상 속 지하철을 오가면서도 현실 세계를 살아가게 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기묘한 광경을 보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일 뿐인 걸까? ‘나’는 전문 몽상가일까? 아니면 머리가 고장 난 직장인일까? 아니면 ‘나’는 외계인?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걸까?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결국 이 덧없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다. 고장 난 머릿속에 다시 꾸역꾸역 집어넣고 당분간 작업을 멈추는 수밖에 없었다.

창작할 때면 이렇게 작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고는 한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보통 노력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끔은 기다려야 하고 가끔은 잊어버리는 게 낫고 또 가끔은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다.

시간은 항상 내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약이었다. 답과 실마리는 종종 생활 속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달랠 수밖에 없다.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이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감독’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모든 창작은 넘치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더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책을 창작하는 일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여러날이 지나고 어느 날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맹인’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재빠르게 이 개념을 지하철 이야기와 연결해 봤다. 만약 주인공이 ‘못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인공이 있는 공간은 다양한 가능성으로 들어차게 된다. 그가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생각한 것 모두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다. 모든 기이한 상상들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잊고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내 머릿속 깊은 곳에  
담아 뒀을 뿐이다. 이야기는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수면  
위로 떠올라 내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봐, 나는 준비됐어!

그래서 ‘나’는 맹인이 돼서 지하철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깐만.

만약 ‘나’ 즉, ‘맹인’을 ‘소녀’로 바꾼다면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상을 주지  
않을까?

주인공이 명확해진 다음 내 <지하철>은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열다섯 살 소녀가 지하철로 걸어 들어간다. 소녀는 인생의 여정을 다시 시  
작한다.

다음 문제는 ‘소녀는 왜 지하철을 타느냐?’였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  
던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못 보게 된 걸까? 나는 소녀가 어려서부터 지하철  
을 타고 싶어 했고, 엄마가 지하철 입구에서 그녀를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고 상  
상했다. 소녀의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걸어 나왔고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  
다. 소녀의 친구들은 지하철을 타고 떠나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하철  
입구는 소녀에게 슬픔이자 다시 희망을 찾는 장소이다. 그 안에는 수많은 비밀과  
상상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다. 소녀의 작은 영혼은 스스로 신비의 세계를 찾아  
낼 어느 날을 항상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입구에서 천사가 내게  
안녕이라고 말하던 그 날  
점점 눈이 안 보였어요  
열다섯 살 생일날, 가을 아침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렸어요  
나의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6시 5분에 나는 지하철을 탔어요

작업 중에 보기에는 정말 간단한 것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가다’와 ‘올라가다’로 구성된 ‘V’자 화면이 확립되기 전에 나는 정말로 많고 많은 스케치를 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다. 지하철을 타고, 다음 역까지 이동하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이 세 과정을 가장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나는 도대체 그림을 몇 장이나 사용해야, 또 어떤 장면을 그려야 일목요연하게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와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심플한 ‘V’ 자 화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같은 화면에서 세 가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유랑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건 당연히 ‘V’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나는 힘들게 먼 길을 돌고 돌아 가까스로 찾아냈던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창작의 길에 나침반이란 없다. 대개 모든 길은 자기가 직접 가봐야 한다. 어쩌면 내가 너무 바보인지도 모르겠다.

<지하철>의 입구와 출구를 한 세트로 만들어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복잡한 초안을 그려냈다. 그동안 많은 서양 예술가들의 책을 찾아봤다. 피카소, 마티스, 샤갈, 클레, 몬드리안의 그림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때부터 내 그림은 점점 화려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어쩌면 당시는 내가 건강한 편이었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이 책의 주인공이 못 본다는 것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이 상상하는 세상은 분명 더 자유분방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뉴욕, 파리 지하철에서 재미있는 타일을 여러 개 이어 붙여놓은 걸 봤었는데 그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다. 그래서 <지하철>을 작업할 때 나는 ‘타일 강박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타일을 하나하나 그리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다. 모든 지하철 플랫폼에 각기 다른 색을 입히고, 저마다 다른 배열의 모자이크를 생각해내야 만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겐 놀이였고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만약 못 그리게 한다면 나는 아마도 미쳐버렸을 거다.

이 책의 내용은 거의 다 완성했지만 이번에는 멋진 결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지하철 세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는 끊임없이 상처 받고 길을 잃고 오가지만 결말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 걸까?

나는 다시 작업을 멈추고 기다렸다.

어느 날 중국시보에서 소개한 <누군가 지하철 출구에서 나를 기다린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소설을 읽었다. 그때 나는 답을 찾았다.

*사실 나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지하철 출구에서 나를 기다릴까요?*

*그는 내게 우산을 씌워주고 내 손을 꼭 잡은 채 별의 방향을 가르쳐줄 거예요.*

*나와 함께 잠시 길을 걸었죠*

당시 한창 서양 미술에 관심이 충만하던 때여서 나는 일부러 장쑤(蔣勛)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 그날 오후는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졸고 있었다. 장쑤 선생님은 낭만주의 시기에 장미가 중요한 상징이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장미 한 송이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장미꽃이라는 이 세 글자를 들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나의 앞을 못 보는 소녀에게 장미꽃 한 다발 안겨 보내고 싶었다.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도 내게 영감을 줬다. 마지막에 나는 앞을 못 보는 소녀가 마치 천국처럼 색유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

창작은 이렇게 기이하다. 당신이 작품과 오랫동안 ‘옆치락뒤치락’할 때, 설령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사이 작품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 말에서 혹은 우연히 마주친 한 문장에서 마치 누군가가 마법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돌연 반짝하고 어려운 문제가 확 풀려버린다.

<지하철> 출간 후 어느 날 타이중(臺中)에 강연하러 갔었다. 12시 비행기를 타려고 11시에 도착했더니 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11시 비행기 승객들이 모두 탑승하자 시끌벅적하던 대합실에는 덜렁 나 혼자 남았다. 신문을 아무 지면이나 펼쳐놓고 읽었다. 상단에는 홍콩 작사가 린시(林夕)의 인터뷰가 있었다. 나는 줄곧 린시의 가사를 좋아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가 지미의 작품을 좋아하게 됐고 지미의 작품에는 음악적인 느낌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사실 나는 음치인데 존경해마지않는 작사가가 놀랍게도 내 작품에 음악성이 풍부하다고 말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하철>을 다시 읽어봤다. 모든 장면이 간결하고 힘 있는 하나의 리듬을 이루고 있는 게 보였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천천히 변주하면서 은근한 박자와 리듬감을 보였다.

본디 작품은 아주 아주 먼 곳까지 전달될 수 있고, 상상도 못 한 곳까지 가서는 감동의 에너지를 마구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품이 담아온 응원의 힘으로 다시 창작자가 감동받는 것.

*나는 복잡한 이 도시를 뒤적뒤적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붉은 사과를 찾아서  
떨어진 황금 낙엽을 찾아서  
마음속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찾아서*

<지하철>은 내가 가장 섬세하게 그린 예쁜 책이다.

하지만 작업할 때는 오히려 모든 실존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는 했다. 정말 지미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었다. 만약 5년을 잘 버티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오래 살 수 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이 관문을 넘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잘 넘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자주 걱정했다. 심지어는 만약 내가 이 작품을 다 완성하기 전에 잘못된다면 그때 누구에게 뒷일을 맡겨야 할지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매일 조금씩 마음으로 이 책을 그려나갔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앞을 못 보는 소녀는 나의 페르소나가 되었다. 그녀가 들어가는 지하철 세상은 비록 알록달록 빛났지만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제의 아픔은 이미 잊었어요*

*잊을 수 있는 건, 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역이 종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풀 내음 가득한 공기*

*작은 새가 노래해요*

*유년 시절 물푸레나무 밑에서 가졌던*

*침묵의 장례식을 다시 떠올려요*

한 친구가 <지하철>을 읽고는 말했다. 앞을 못 보는 소녀가 겪는 것들이 바로 죽음의 여행이라고.

이 이야기를 빌어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응원하고, 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왔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앞 못 보는 소녀가 대신하여 깊이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를 지켜봐 준 모든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곁에서 꼭 함께 해줘서 고마워!